



이 자리에서 두 작가 ‘작가가 사회를 만났을 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두 작가

이 자리에서 두 작가 ‘작가가 사회를 만났을 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두 작가 ‘작가가 사회를 만났을 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70년 동안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작가의 눈에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요? 난민, 주거권, 농촌과 다문화, 동물권까지... 생애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가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2018. 8/25, 10/27, 11/3, 11/24 토요일 오후 5시~ 한국근대문학관 3층 교육연구실

“이 자리에서 두 작가 ‘작가가 사회를 만났을 때’ 70년 동안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작가의 눈에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요? 난민, 주거권, 농촌과 다문화, 동물권까지... 생애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가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00 : 0000 000

000000 000 00 0000 00000? 00 0 0000 “0 0000 0000 00 000000 00 0000. 0 0
00 00 00000 0 0000000 00 0000 000000 00 00000000 00 00 00 00000 0000. 00
00 00 0000 0000 0000 0000 00000 0000. 00000 00000 00 000000000 00000 00000
0000 00 00 0000 0000000 00 0000 00 0000 0000 0000 0000”0 00 0000 00000.



00 : 0000 000

00 000000000 000000 <000000 0000>0 00 00000 0 00 00000. 0000 0000 00 0000
0 00000 000000000 00000 0000000. 0000 00 00000 00 000000 00 00 0000 0000 00
000000 00 00 0 0 00000000 0000 0000.

0000 00 0000 00000 0000 0000 0000 0 0000. 0 0000 “00 00 0000 0 000000 0000
0. 0000 00000000 00000 00 00000 00 00000000 00000 0000000. ‘000000 000000 00000
000000 0000 0000000’000 0000 0000. 0 000000 00000000 00000000. 0 0 000000 00000 0
00 00 0000 0 00 0000 00000000 0000 00”0 0000.

한국근대문학관 2018 하반기
작가와 만나는 토요일

작가가 사회를 만났을 때

2018년 현재, 당신은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작가의 눈에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요?
난민, 주거권, 농촌과 다문화, 동물권까지...
섬세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가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2018. 8/25, 10/27, 11/3, 11/24

토요일 오후 5시~

한국근대문학관 3층 교육연구실

제1회 (8/25)  「로기완을 만났다」 (창비)	진행  조 해 진	진행  준(장혜형)
제2회 (10/27)  「소수의견」 (들녘)	진행  손 아 람	진행  김 일 란
제3회 (11/3)  「모두 괜찮」 (창비)	진행  김 중 미	진행  박 속 경
제4회 (11/24)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창비)	진행  하 재 영	진행  김 하 나

1. 사전에 안내된 책을 읽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2. 두 번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해 특별 제작한 기념품을 드립니다.
3. 신청 : 전화 032)773-3805 또는 gangjwa01@naver.com으로 성명,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 문의 : 032)773-3805

